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51.31	↓ 코스닥	696.05
	(+1.12)		(-5.16)
↓ 금리 (미국 9년)	3.556	↑ 환율 (원-달러)	1244.70
	(-0.021)		(+1.20)

【뉴스】
尹, UAE 첫 국민방문
원전·에너지·방산
세일즈 외교 나서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LG엔솔, 포드서 러브콜... '수출 문제' SK온, 숨고르기

배터리社, 해외 합작공장 향방은

SK온, '포드 튀르키예 공장' 중단 자금시장 위축, 수출 차질에 부담 LG엔솔, 포드공장 새 파트너 유력

연초부터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완성차 업체 포드가 SK온과 협업을 사실상 접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다른 수급처와 손을 맞잡기도 해 이슈가 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포드는 당초 포드는 SK온, 코치 등과 함께 튀르키예에 JV를 세우고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3개사는 튀르키예 앙카라

인근 지역에 연간 30~45기가와트시(GWh)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기차 납품 기준으로는 40만~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르면 2025년 가동 예정이었다. 3사의 총 투자 금액은 3조~4조 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

하지만 SK온과 포드의 합종연횡은 미뤄지게 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본격화와 자금시장 위축이 이유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는 "SK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을 맞추기 힘들다는 예상이 내부에서 나왔다면 더 진전시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온 관계자는 "MOU 후 튀르키예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해 협의했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협상 중단 여부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협력사 중 하나인 코치도 9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포드나 SK온과 배터리 협력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상황은 사실상 건설 '중단'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지만 SK온과 포드의 협력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포드 자동차와 SK온은 미국 내에서 2개 공장을 짓고 있으며 헝가리 공장 증설도 진행 중이다. 미국 미시간주(州)에서 포드가 생산하는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트럭은 SK온 맡고 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의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



지난해 SK온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 터키 대표 기업 코치와 함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합작법인(공장)의 대략적인 위치. 하지만현재 해당 공장 건설은 중단 위기에 놓인 상태다. /SK이노베이션

신에 따르면 양사는 1월 말이나 2월 초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공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튀르키예 합작공장 계약은 아직 확정된 게 없

다"고는 말했지만 업계에서는 SK온의 대안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5면>

/사진공동취재단

승계작업 속도내는 식품업계, 오너 3세 전면에

식품업계 오너 3세들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세대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리온그룹은 2023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장남인 담서원 경영지원팀 수석부장을 경영관리담당 상무로 승진시켰다.

담상무는 1989년생으로 미국 뉴욕대를 나와 중국 유학을 거쳐 카카오펀터프라이즈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오리온에 경영관리팀 소속 수석부장으로 입사했다. 이번에 약 1년 6개월 만에 경



담서원

오리온 경영관리 상무



이선호

CJ 식품성장추진실장

영관리담당 상무로 승진하며 기획, 사업전략 수립, 신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담 상무가 인수합병이나 해외 사업성을 검토하고 전제적인 그룹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CJ제일제당도 2023년 임원인사를 통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를 글로벌 식품 사업을 이끄는 식품성장추진실장으로 선임했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흑한기 반도체 '바닥' 임박 삼성 '치킨게임' 승자 되나

상반기부터 메모리 재고 감소 기대 가격 하락세 완화, 수요 증가 예상 중봉쇄해제·美경제지표도 긍정적

반도체 시장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올해도 시장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조만간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바닥'이 임박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이번 '치킨 게임'으로 시장 영향력을 얼마나 더 확대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한달여만에 다시 6만원대로 올라섰다. SK하이닉스 주가도 7만원 중반대에서 급등해 8만원 중반까지 회복했다.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 4조원대로 기대치를 크게 밑돈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최대 2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유력하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는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럼에도 주가가 반등한 이유는 상반기부터 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과거 메모리 다운사이클 당시 '재고 정점' 직전 분기부터 주가가 반등했다고 소개하며 관련 주 매수를 추천하는 보고서를 새로 내놓고 있다.

실제로 트렌드포스는 1분기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전분기 대비 13~18%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1분기 비수기에 더해 모바일과 서버용 D램 등 주력

제품 수요가 여전히 낮아 한동안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최신 GPU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와 GDDR6 16Gb 확대 등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에도 주목했다.

호재도 기다리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DDR5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비중을 10%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인텔이 10일(현지시간) 4세대 서버용 CPU를 발표하면서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일 업계 D램 재고도 5~7주 정도로 떨어진 상황,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도 본격화하면서 재고 수준은 더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분기가 '재고 정점'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중국 봉쇄 해제에 이어 미국 경제 지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금리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에 이어 SK하이닉스도 감산에 돌입하면서 공급 불균형도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년에 비해 짧은 '치킨게임'에서 삼성전자는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가 이미 재고를 소폭 줄였다고 추측했다.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시장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4면에 계속)

/김재용기자 juk@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심상정 "尹정부, 시중은행의 대출 2% 서민 대출 할당 추진해야" /사진 뉴시스
▲ 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50m 사이두고 '맞불집회'

▲ 與, 이檢 출석 지도부 동행에... "개인 비리에 민주당 위세"
▲ 민주, 대통령실 '나경원 압박'에 "원하는 당대표 지명하라"



▲ 나경원 저출산위 사의... 대통령실 "들은바 없다"
▲ 中,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 중국인 입국규제에 '보복조치' /사진 뉴시스